

安壽吉의 小說研究

— 短·中篇小說을 中心으로 —

金 永 和

I 序

南石·安壽吉(1911.11~1977.4)은 1935年 8月『朝鮮文壇』懸賞文藝에 短篇小說「赤十字病院」¹⁾과 콩트「붉은 목도리」가 각각 當選되어 文壇에 데뷔했다. 文壇에 데뷔할 무렵 安壽吉은 間島에 있었다. 때문에 中央文壇과는 별다른 交流없이 創作을 계속했다. 當選되는 해에 「胡哥네 지팡」(後에 「새벽」으로 改題)을 써서 金東鳴을 통해 雜誌『朝光』에 發表할 예정이었으나 마침『朝光』이 廢刊되어 發表되지 못했다. 40년에 와서 在滿朝鮮人作品集인 「씩트는 大地」가 發刊될 때야 이 作品이 비로소 햇빛을 보았다. 이처럼 文壇에 데뷔할 무렵에는 作品活動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滿鮮日報에 廉想涉 등 여러 文人들이 일하게 되면서 이들과 交際하는 한편 계속해서 作品活動했다. 解放後 一時 身病으로 作品活動의 空白期를 가지기도 했으나 死亡할 때까지 40余年間 활발한 作品活動을 했다. 이 40余年間에 發表된 作品이 長篇小說 20余篇, 短·中篇小說이 60余篇이나 된다.

이 많은 作品들 가운데 一部の 作品——「北間島」, 「通路」, 「第三人間型」 등에 대해서는 部分的으로 論議(批評)된 바 있다. 그러나 論議對象을 擴大하여 長篇小說 全部를 對象으로 하거나 短篇小說 全部를 對象으로 한 綜合的 研究는 눈에 띄지 않는다.

安壽吉 小說에 대한 綜合的 研究는 長篇小說과 短篇小說 등 그의 모든 作品을 論議對象으로 올려놓고 研究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作品의 量이 많아서 研究의 便宜上 우선 短篇小說과 中篇小說로 論議對象을 限定시키고 檢討하기로 한다. 「北間島」, 「通路」 등

1) 이 作品은 獨立軍의 赤十字病院長이었던 主人公이 日警의 눈을 속이기 위해 거짓 미치광이 노릇을 하다가 마침내 그 部落을 습격해 온 共產遊擊隊의 손에 납치되어 간다는 줄거리다. 內容이 不體하다 해서 總督府의 檢閱에 通過되지 못해 發表되지 못했다.

安壽吉, 「나의 처녀작 시절」, 「명아주 한포기」(서울: 文藝創作社, 1977), pp. 205-206 參照.

長篇小說에 대해서는 다시 論議할 機會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60余篇의 短篇小說과 中篇小說을 對象으로 作品의 諸要素를 分析하여 그의 小說의 特徵을 抽出하고, 이것을 作品의 發表된 당시의 歷史의 狀況과 社會에 비추어 그 文學的 眞髓와 價値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小說史的 意義를 考究해보자는 潛在的인 생각도 없지 않다.

Ⅱ 作 品 世 界

安壽吉의 小說(短篇 및 中篇)을 通讀하면 두 가지 側面을 發見하게 된다. 하나는 時間과 더불어 作品世界의 變貌를 보여주는 一面이요,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一貫된 問題를 계속 追求하는 一面이다.

「벼」(1940)로 대표되는 初期小說과 「第三人間型」(1953)으로 대표되는 中期小說, 그리고 「IRAQ에서 온 不穩文書」(1965)로 대표되는 後期小說 등은 時間과 더불어 그의 作品世界가 변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될 것이요, 「萌芽期」, 「亡命詩人」등에서 追求된 亡國人意識은 時間이 변모와는 關係없이 계속 이를 追求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前者의 作品世界의 변모는 뚜렷한 樣相을 드러내고 있어 이내 파악하기 쉽다. 대체로 이것을 3期로 나누고 있는 것이 通說인 것 같다.²⁾

初期小說인 第1期는 1935년부터 1943년까지 「새벽」, 「벼」, 「圓覺村」, 「牧畜記」, 「土城」, 「바람」, 「北原」, 「四號室」, 「한 여름밤」등 間島를 중심으로 한 滿洲一帶에서 流浪民으로 轉落한 韓民族의 삶의 樣相을 表現한 時期가 이에 해당된다. 이 時期에 그의 第1創作集 『北原』이 刊行되었다.

中期小說인 第2期는 1949년부터 1960년까지 「旅愁」, 「第三人間型」, 「流產」, 「道聽塗說」, 「제비」, 「快晴」, 「逆의 處世哲學」, 「짜르비아 핀 庭園」, 「凡俗」, 「과란눈」, 「이런 春香」등을 發表한 時期로 祖國의 解放, 流浪民의 歸國, 南北分斷, 6·25의 民族相殘 등이 民族에게 衝擊과 試鍊과 挫折을 안겨준 時代를 배경으로 韓民族의 아픔을 表現한 시기가 된다. 이 時期에 第2創作集 『第三人間型」, 第3創作集 『初戀筆談』의 刊行을 보았다.

後記小說인 第3期는 1961년부터 이 作家가 死亡한 1977년까지 「序章」, 「IRAQ에서 온 不穩文書」, 「타목」, 「거름」, 「새」, 「동대저개의 맛」, 「亡命詩人」, 「羅子 머자니크」등을 發

2) a) 申東漢, “安壽吉의 文學”, 安壽吉選集, 「新韓國文學全集」, 18 (서울: 語文閣, 1975), p. 543.

b) 尹柄魯, “安壽吉論”, 「現代作家論」(서울: 宣明文化社, 1974), p. 149.

c) 李光勳, “安壽吉論”, 安壽吉著, 「牧畜記」(서울: 汎友社, 1976), p. 11.

表한 時期로 4·19와 5·16 등 「歷史的 激變과 祖國의 어두운 狀況, 急變하는 새로운 社會의 대두를 背景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苦惱를 表現한 時期가 이에 해당된다. 이 時期에 第4創作集 『風車』, 第5創作集 『벼』, 第6創作集 『亡命詩人』이 刊行되었다.

< 1 >

第1期 小說에 드러나는 것은 첫째 間島를 중심으로 滿洲一帶가 小說의 背景이 되어 있고, 둘째 祖國에서 삶의 據點을 잃고 間島로 流浪해 간 一般民衆의 삶의 樣相을 表現하고 있으며, 셋째 異民族과의 葛藤, 祖國을 잃은 痛恨 등이 表現되고 있다.

日帝의 勢力이 浸透되기 시작하면서 經濟的 收奪은 露骨化되었다. 特히 土地의 占奪³⁾은 農民들에게 致命的인 것이었다. 從來 驛土, 屯土 등에 매달려 살아왔던 農民들은 農土를 잃고 日本人의 小作人이 되거나 國外로 流浪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安壽吉 小說에 登場하는 人物들은 故國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間島로 流浪해 간 사람들의 主流를 이룬다. 그 要因은 여러 가지 있으나 주로 經濟的인 理由가 큰 比重을 차지한다.

우리가 호가네 지팡에 온 것은 내가 다섯 살 때였다.

설은 쇠었다고 하나 몹시 추운 날이었다.

나의 기억은 두만강을 넘어선 뒤의 한 장면이 가장 또렷하다.

아버지는 나를 얼룩이 진 요에 싸업고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이불에 싸업었다.

누이는 아버지의 큰 저고리를 입고 따라왔다.

나는 어찌도 추운지 요 속에 머리를 박고 아버지의 등에 꼭 붙안져 있으려니까 아버지 등의 때 냄새와 요의 퀴퀴한 냄새로 숨이 막혀 견디지 못하겠던 생각이 난다.

얼마 안되는 세간 짐은 말을 한 필 내어 실었는데 짐보통이에 매달아놓은 바가지가 달랑달랑 하는 것을 나는 가끔 아버지 등에서 머리를 내밀어 재미있게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였다.

가끔 말군이 말을 때리는 채찍 소리가 딱 하고 먼 하늘에 찢어지게 반향되어 돌리던 것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⁴⁾

그러나 원주민인 이곳 농민들은 바가지를 보통이에 매달고 거지배같이 물려오는 조선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적개심을 느끼고 그들을 모멸하였다.⁵⁾

3) a) 趙瑣濬, “때 갖긴 生活圖=土地·商權”, 『韓國現代史』, 2 (서울: 新丘文化社, 1969), p. 356. 과

b) 金容燮, “收奪을 위한 測量=土地調查”, 『韓國現代史』, 4, p. 96. 등의 글에 그 경위가 자세히 記錄되어 있다.

4) “새벽”, 安壽吉選集, 『新韓國文學全集』, 18 (서울: 語文閣, 1975), p. 459.

5) “벼” 選集, p. 485.

4 는 문 집

위 引用文에 드러나시피 이들 流浪民들의 삶은 貧窮 속에 있다. 이런 貧窮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데서 流浪의 길을 擇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찾았던 곳은 결코 생각했던 것처럼 理想郷이 아니다. 間島에 건너가서도 自己所有의 土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異民族(中國人)의 小作人이 될 수밖에 없었다. 小作人이 아닌 自由로운 農民이 되기를 渴求했던 이들에게 間島도 救援의 땅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리하여 小作人 生活를 면하려는 念願이 일게 된다. 그런 念願을 이루기 위해 「새벽」의 主人公은 소금밀수를 하다가 적발되어 中國警察에 被逮되고, 罰金을 물기 위해 딸을 擔保로 高利債를 얻어 썼다가 딸을 빼앗기게 된다. 딸의 自殺, 아내의 發狂, 主人公 自身이 被殺 등 極限狀況 속에 빠지게 된다. 祖國을 떠나 間島로 流浪해 간 한 農民과 그 家族들의 悲劇은 하나의 象徴의 意味를 갖는다.

「벼」의 경우도 韓民族이 어떤 시련을 겪는가를 보여준다.

당시의 중국 정부에서도 대체로 방치원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주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대국민으로서의 금도라고 자부했다. 그리고 인구가 희박하고 개간지역이 엄청나게 넓은 만주에서 더욱 수전의 개간은 자원의 발굴이며 국력의 증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주증(移住證)을 발급하여 월경(越境)하는 백성들을 환영하였고 지주들은 이미 이주해온 사람들을 통하여 조선농민들을 부르기까지 하였다. 조선사람의 힘을 빌어 만주의 황무지 개간을 꾀하였던 것이다. 한 현장이 홍덕호의 의견을 한 마디로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정부의 국력증강책에 부합한 까닭에서였다.⁶⁾

流浪 移住民들은 雜草가 우거진 땅을 疾病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 沃土로 개간해 놓는다. 그러나 契約에 따라 一定期間이 지난 후에는 다시 地主들에게 반환하고 小作人으로 轉落한다. 그런 과정에서 原住民인 中國人 農民과의 마찰과 갈등, 生命의 희생이 계속된다. 더우기 行政官吏가 바뀌면서 中國의 政策이 바뀌어 流浪民들을 追放하려 든다.

소 현장은 곧 부하를 시켜 매봉둔 조선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매봉둔에 오십여 호, 그 부근에 십 호, 이십 호석의 작은 부락을 합해 이백여 호가 산다는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조선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링스관(領事館) 경찰이 들어오게 된다.

다른 곳에서는 조선사람을 민국에 입적시키고 중국옷 입기를 강제하여 자기 나라 백성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런 미지근한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소 현장의 지론이었다.

국적에 들진 안 들진 조선사람은 어디까지나 조선사람이고 조선사람인 이상 일본으로서서는 보호

6) Loc. cit,

할 의무가 있다 하여 영사관 설치가 문제 될 것이고 일본의 영사관이 설치된다는 것은 곧 일본의 정치세력이 만주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게다가 조선사람은 천성이 간사하여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편에 가담했다가도 불리하면 곧 배신하기 일쑤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문제의 백성인 조선사람을 아예 입국시키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온순한 수단으로, 그것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강제 수단을 써서 몰아냄으로써 화근을 뽑아버려야 된다.⁷⁾

中國과 日本의 利害關係가 얽히면서 애써 개간한 農土를 잃고 있는 것이 이들이다.

祖國을 잃은 一般民衆은 발붙일 據點이 없다. 國內에서도 쫓겨나고, 間島에서도 피를 흘리면 서 개간해 놓은 땅마저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들은 保護해 줄 政府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亡國人의 痛恨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벼」와 「새벽」에 登場하는 人物들은 단순한 個人이라고 볼 수 없다. 保護해 줄 政府를 갖지 못한 植民地時代 一般民衆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이 단순한 個人이 아니라 대다수 一般民衆이라는 데서 이들 小說은 중요한 比重을 차지한다.

植民地時代 韓民族의 슬한 苦痛과 彷徨과 痛恨등은 歷史의 記錄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그들의 具體的 삶을 이렇게 表現한 作品은 우리 小說 가운데 흔하지 않다. 20年代 崔曙海의 「紅焰」등 一連의 小說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제시한 바가 있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安壽吉의 作品世界는 崔曙海의 作品世界를 한층 더 深化·擴大하고 民族全體의 삶을 異民族과의 갈등, 日本과 中國의 國家政策까지 연장시켜 검토하고 있다는데 소중한 意義를 갖는다. 게다가 세련된 表現까지 곁들여 文學的 感動을 자극한다.

이와 같은 問題는 50年代에 들어와서 韓國小說史에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 틀림없는 「北間島」 제작의 源泉이 되고 있어 安壽吉 世界의 중요한 領域이 되고 있다.

< 2 >

第2期는 祖國의 解放과 南北分斷, 流浪民들의 歸國, 6·25의 民族相殘과 避亂生活 등 이 民族에게 커다란 衝擊을 준 事件들이 주축을 이루는 時代를 背景으로 해서 쓰여진 作品들이 主流을 이룬다.

「旅愁」와 「第三人間型」은 歷史의 소용돌이 속에 人間의 意識이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가. 價値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問題가,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知識人들이 어려운 時代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⁸⁾ 樣相이 그려지고 있다.

7) “벼”, 選集, p. 504.

8) 安壽吉, “어떻게 사느냐”, 「명아주 한포기」 p. 240.

時代의 激動과 그것이 個人에게 주는 衝擊波로 말미암아 언제나 受動的으로 삶을 이어가는 知識人의 아픔은 「旅愁」의 〈박철〉과 「第3人間型」의 〈석〉을 통해 드러난다. 〈박철〉과 〈석〉은 作家다. 〈박철〉은 해방전 만주에서 新聞記者로 있다가 해방후 歸國한 사람이다. 故國에 돌아와서도 다시 記者로 일하는 한편 作品活動을 한다. 生活에 쫓겨 作品다운 作品을 제작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積極的으로 自己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는데 消極的이다. 多분히 受動的인 植物的인 人間像이다. 〈석〉의 경우도 6·25때 避亂次 釜山으로 내려온 作家다. 避亂地에서 Y고등학교에서 敎員을 잡으면서 生活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자기의 職業에 만족하지 못한다. 家族의 生計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敎員生活을 하고 있지만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좋은 作品을 쓰는 일이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苦悶하는 인물이 〈석〉이다. 그도 〈박철〉처럼 受動的인 植物的인 人間像이다.

이들은 小說을 달리고 있지만 同一人物이라는 印象을 준다. 그들의 思考方式, 價値觀, 生活內容이 아주 비슷하다. 이들이 겪고 있는 苦痛과 苦悶은 그러므로 6·25를 前後한 良心의 이고 消極的인 韓國 知識人의 苦痛과 苦悶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번 출장은 바로 그가 구상하는 장편의 실지 답사도 결합 수 있는 좋은 기회인 탓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서울을 벗어난다는 가벼움, 그 좁은 서울, 치수가 맞지 않는 서울, 무엇에 쫓기듯 기를 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던 서울을 멀리한다는 즐거움이 그를 유쾌하게 한 것이었다.

절의 서울 생활은 무기력하고 빛이 없고 외로운 것이었다.

먹고 사는 일에 쪼들리는 경제적인 압력 때문이기도 하였다.

병약한 몸이 직장의 격무에 시달리는 육체적인 피로도 있었다.⁹⁾

그러나 敎育者로서 석은 아직 애송이었다. 아니 엑스트러의 자격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니, 또 이십년, 마음의 지주였고 生活의 目標이었던 그 길을 이제 일조에 분필로 바꾼다는 것이 자신을 배반하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 더우기 제 자신에 충실하여 학교를 그만둔다면, 또 그나마도 生活의 方便이 막히는 것이었다. 직업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자신에도 엉겨주춤하고, 이러한 자책의 채찍을 맞으면서, 석은 점심밥 그릇과 원고지권이 함께 들어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벌써 십여개월 날마다 삭막한 통근 코오스를 흐리터분한 분위기 속에 학교에 왔다갔다 하였다. 초조감만 북투아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 간다.¹⁰⁾

〈박철〉과 〈석〉은 作品을 쓰는 일에 一種의 使命感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使命感에만 매달릴 수 없는 現實的인 條件 때문에 苦悶하고 있다. 이것은 良心的이고 消極的인 韓國 知識人들의 겪는 일이다. 이 知識人들의 아픔을 통하여 時代의 苦悶相을 그린 것이 이들 小說에

9) 「旅愁」, 選集, p. 420.

10) 「第3人間型」, 選集, p. 385.

드러난다. 그러나 時代의 激變에도 不拘하고 이들의 意識은 크게 변모하지 않는다. 변모하는 人物, 시대의 요청에 따라 용감하게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人物은 도리어 <황숙>과 <미이>이다.

<황숙>(旅愁)은 同志社大學을 다닌 일이 있는 文學徒다. 放學때는 詩集과 原書를 끼고 다니면서 화려한 꿈을 꾸던 발달한 女性이다. 世俗的인 名譽나 權勢나 돈을 추구하는 아버지를 경멸하면서 生存보다 生活을 추구하겠다는 女性이다. 結婚後에도 돈 많은 男便의 그늘에서 經濟的인 苦痛을 모르고 世上을 살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沒落과 男便이 육살이를 통해 스스로 生計를 책임질 위치에 서면서 自己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식구가 가두에 방황하게 되어 무어든 벌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손톱 하나 투겉세라, 곱게 놓고 먹던 제가 아니에요. 돈 쓰는 데라면 혹하겠지만, 버는 일에 들어선 언제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저는 비로소 꿈을 깨었어요. 지금까지의 저의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 부모의 재롱감이었고 남편의 위안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권세와 돈에 물려 세상을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여튼 쉬운 것이 교사 노릇이겠다 싶어 만주에서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었던 A씨를 찾지 않았어요. A씨는 ××당 부산당부의 간부였었어요. 제가 어릴때 딱 귀여워 해주던 이예요. ... 그러나 A씨의 태도는 저를 반민자의 딸이요, 간상 모리배(奸商謀利輩)의 아내로 대하듯 퍼도 냉정하지 않아요. ... 그래서 제 손으로 남의 힘을 빌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쫓아가며 해보았으나 모두 실패하는 동안에 발견한 것이 빈대떡 장수였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내가, 황 숙이, 술집 계집 못지 않는 빈대떡장수로 전락할 수가 있을까. 나의 자존심이 도무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반민자의 딸이요, 간상 모리배의 아내라는 것은 부끄럽게 여길망정 빈대떡집 아주머니는 조금도 풀리게 생각지 않아요. 그것은 이 영업을 하는 동안에 제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지금까지의 저의 생활이란 땅을 디디고 선 것이 아니었어요. 내 식구 입에 풀칠하기 위해 시작한 이 업을 하는 동안 저는 생존이 아닌 생활을 발견했어요. 참된 인간, 땅에 발을 디딘 인간으로 새출발을 한 것이예요. 먹고 사는 것이 쓰라림을 이해했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그 생활력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신적인 생활의 기초가 이 생활력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 지금은 해방덕에 모든 불순했던 것,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 청산되었다는 가벼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것도 생활과 부닥친 데서 얻은 소득이라면 소득일까요. 깨끗한 생활, 높은 생활, 충실한 생활—아버지의 대를 이을 내 동생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갖지 않도록, 내 속에서 난 것먹이는 국가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나는 거름(肥料)이 될지라도 그애들의 장래를 인도하고 보살필 작정이예요.」¹¹⁾

이런 意識의 변모는 <미이>(第三人間型)의 경우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6·25前 會社重役의 딸이요, 華麗하고 明朗하고 浮薄한 文學少女가 지나지 않았던 한 女性이 6·25와 더불어 破産과 아버지의 半身不隨, 오빠의 爆死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일과 만나면서 크게 변모된다. 한때 스승으로 따랐던 <조운>으로부터 茶房을 차려주겠다는 提議를 拒否하고 看護將校로 入隊

11) “旅愁”, 選集, pp. 429. - 430.

하는 <미이>도 <황숙>처럼 使命意識을 갖는 女性으로 변모된다.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價値있는 삶인가를 追求한 하나의 例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社會와 現實이 安當할수록 삶에 대한 意識이 強烈하게 마련이고 그런 문제에 대한 대답이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避亂生活을 그린 「제비」, 「快晴」, 「逆의 處世哲學」등도 어려운 避亂生活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問題를 다룬 것으로 그의 모랄리스트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어 위에 검토한 小說들과 軌를 같이하고 있다.

이 時期는 人間의 使命感과 良心의 문제가 주로 追求되고 있다.

< 3 >

第3期는 첫째 急變하는 새로운 社會가 서서히 形成되면서 人間이 점차 倭小해지고, 이런 社會에 適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悲哀를 그리고 있다. 「序章」, 「새」, 「기름」등이 그런 型的 小說이다.

「序章」의 <김수동>씨는 실제의 나이는 45才이지만 戶籍上으로는 48才로 되어있다. 越南後 戶籍을 整理할 때 그렇게 된 것이다. 5·16後 45才를 메드라인으로 免職發令을 하게 되었을 때 밀려났다. 職場에서는 별로 必要치 않은 人物이 된 것이다. 이제야 職場에서 밀려났지만 전부터 慢性 整理 노이로제에 걸려¹²⁾ 減員과 整理가 있을 때마다 不安 속에 지내왔다. 그것은 本人만이 아니라 아내는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不安이 번져나갔다. 한 人間이 주어진 社會에 적응하지 못해 不安 속에 있다가 쫓겨나는 事態는 60年代 以後 두드러진 현상이다.

「새」의 경우도 整理 바람에 職場에서 밀려난 사람의 이야기다. 「새」의 主人公인 <나>는 職場에서 밀려난 후 不安, 挫折, 無氣力 속에 있다. 그것은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가 無力한 날개를 가진 것과 같다. 그러던 어느날 새장에 갇힌 새를 농아춤으로 해서 無氣力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 「序章」의 <김수동>씨와 비슷한 人物이다.

「기름」의 경우는 燃料가 石炭에서 石油로 바꾸어지면서 鑛夫들이 失職하게 되고, 失職鑛夫인 <연희아저씨>의 悲劇을 통해 社會相의 斷面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들 小說들은 60年代에 들어서면서 韓國社會에 있을 수 있는 중요한 問題들을 다루고 있다. 약하고 消極的인 40代, 50代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不安意識이 그려져 있어 社會의 변모와 人間의 삶을 照明하고 人間의 意識이 어떻게 변모해가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作家의 社會意識, 歷史意識의 所産이요, 社會에 대한 날카로운 關心에서 緣由한 것이라고 볼 수

12) 安壽吉, “어떻게 사느냐”, 「명아주 한포기」 p.242.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이 時期의 小說들은 韓國이 처해 있는 特殊한 狀況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不安과 一種의 被害妄想에 젖어있는 사람들의 世界를 그리고 있다. 「IRAQ에서 온 不穩文書」, 「동태찌개의 맛」 등은 이런 型에 속하는 소설이다.

「IRAQ에서 온 不穩文書」의 主人公〈남진석〉은 越南한 人物이다. 50대에 들어선 作家요, 大學의 哲學講師요, 前職 言論人이다. 한 社會의 중추적 역할을 擔當할 世代요, 한 社會를 이끌어 갈 知識人이다.

그런데 하루는 IRAQ에서 보내온 文書를 받았다. 뜯어보니 놀랍게도 北韓의 宣傳物이 印刷되어 있는 不穩文書였다. 〈남진석〉은 그 순간부터 不安이 시작된다. 왜 이런 불온문서가 어떤 經路를 통해 왔는지 몹시 不安하다. 우표의 난외에 적힌 『IRAQ』란 글자를 보고 거기서 부쳐온 것을 알았으나 어떻게 自己에게, 또 어떻게 住所를 알고 보내왔는지 不安하고 겁이 났다. 궁리끝에 前住所로 온 것을 우체부가 친절하게 새 집으로 배달해 준 것을 알고 그것이 文藝雜誌의 文人住所錄을 보고 부쳐왔다는 것이 밝혀져 安心한다. 그렇다면 다른 文友들에게도 이런 것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자 문득 다른 文友들에게도 이런 不穩文書가 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自己에게만 왔다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멀쩡 겁이 났다. 혹시 이것이 以北에서 장난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갖게 된다. 自由黨時節 國會議員끼리 勢力다툼으로 불온문서를 造作해 모함했던 엽기적인 事件이 머리에 떠오르자 〈남진석〉씨는 스스로 周邊을 생각해 본다. 權力層의 비위를 건드리는 發言을 하지는 않았던가 하는— 이런 被害妄想 속에 支署에 申告해 놓고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당당히 제 주소와 이름으로 온 통신물(通信物)에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고… 그것보다는 그걸 고스란히 관헌(官憲)에 보고하지 않아서는 국민의 도리가 아니고 그것보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한 서글픔이었다.¹³⁾

이것은 南北分斷과 대치 속에 살고 있는 韓國人의 特殊한 狀況과 意識을 그린 것이다. 이런 意識은 韓國人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다.

以北의 政治体制가 싫어서 越南한 知識人이 이런 文書를 받는 순간부터 被害妄想에 젖어 괴로와 하는 것은 韓國社會의 悲劇임에 틀림없다. 이런 수밖에 없는 歷史的 社會的 狀況을 그려내는 것은 安壽吉의 歷史意識과 社會意識의 所産일 것이다.

第3期 小說은 다분히 社會意識이 강한 색채를 띠고 있다. 初期의 民族의 問題에서 中期의 知識人의 苦悶, 後期의 社會意識의 表白—이렇게 그의 소설은 변모하고 있으나 그 底邊은 民

13) 「IRAQ에서 온 不穩文書」, 選集, p.246.

族에 대한 憐憫과 愛情이 깔려 있다.

< 4 >

上記한 作品世界の 변모와는 관계없이 一貫된 問題를 追求하는 것도 있다고 위에서 밝힌 바 있다. 그것은 祖國을 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亡國人意識의 表現이다.

初期小説인 「새벽」, 「벼」 등에서는 韓民族이 祖國을 잃고 間島로 流浪한 사람들의 意識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위에서 검토했다. 그것은 亡國人들의 삶의 表現이다. 특히 「벼」의 <찬수>가 故國에서 敎員으로 있다가 學生들이 同盟休學과 관련하여 拘禁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結果 間島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亡國人的 悲劇이 아닐 수 없다. 「牧畜記」의 <찬호>가 敎員을 그만두고 만주에 건너가 돼지를 기르게 되는 것도 비슷한 狀況이다.

이와 같은 亡國人的 삶은 韓民族의 경우만이 아니라 外國人을 登場시킨 小説에도 그려지고 있다. 最近作인 「羅子 머지니크」, 「亡命詩人」 등이 바로 그것이다.

白系 러시아 少女가 異國인 만주에서 父母를 잃고, 茶房 레지, 日本人의 妾, 그리고 娼女로 轉落한 얘기인 「羅子 머지니크」도 祖國을 잃은 한 少女의 悲劇을 그린 것이요, 白系 러시아 사람이면서 조선말과 글을 배우고 다시 일본말을 배우면서 日本人의 妾이 되었다가 娼女가 된 이 少女의 이야기는 韓國人처럼 祖國을 잃어 본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衝擊的이고 서러운 것으로 傳達된다.

「亡命詩人」의 主人公인 <알베드 바이로이다>는 에스토니아의 亡命詩人이다. 에스토니아는 테닌그라드 서쪽, 헬싱키 남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로 二次大戰後 소련 聯邦에 강제로 併합된 곳이다. 그는 自由世界로 亡命하여 캐나다의 에스토니아 亡命者協會의 保護를 받는 人物이다. 詩集도 4권이 있고 小説集도 있으나 亡命後에는 母國語를 버리고 英語를 習得하여 詩를 쓰지만 發表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詩人이 祖國을 잃는다는 것은 深刻한 문제다. 그것은 母國의 言語를 가지고 더 이상 作品을 쓸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쓴게야 發表舞台를 얻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알베드 바이로이다>의 경우에도 發表할 곳을 얻지 못해 詩를 쓰지 못하는 詩人으로 轉落한다. 결국 詩人의 亡命은 어떤 意味에서 文學 그것의 포기를 의미하고 또 그것은 사는 意義를 잃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그 詩人만이 가지는 痛恨이 있게 마련이다.

祖國을 빼앗기고 流浪의 길을 나선 韓民族이나, 祖國을 등진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온 白系 러시아 소녀나, 조국이 소련에 합병된 후 自由를 찾아 나선 亡命詩人 <알베드 바이로이다>나 한결같은 亡國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人物들을 作中人物로 선택하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作家가 지닌 特異한 점이

다. 그것은 作家 스스로 亡國人的 疎움과 痛恨을 겪었다는 점과도 不可分의 關係에 있을 것이다.

「萌芽期」, 「削髮」, 「登校通告」 등에 드러나는 植民地 韓民族의 受難도 亡國人意識을 갖게 하는데 여러 가지 作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분히 自傳的인 「萌芽期」¹⁴⁾에서 한 식민지 少年이 겪는 受難은 作家의 少年時節의 片鱗이며 이런 體驗은 亡國人意識을 갖게 하는데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또 解放以前에 만주에서의 生活은 말할 것도 없고 解放後 歸國해서도 故鄉에서 살지 못하고 越南해서는 언제나 鄉愁 속에 살게 되는 ; 故鄉喪失의 失鄉民意識도 결국 亡國人意識의 연장이다.

「故鄉바다」, 「동태찌개의 맛」, 「旅愁」, 「鄉愁」, 「歸心」, 「序章」 등에 드러나는 피난민의식과 故鄉喪失의 아픔등은 亡國人意識과 相通한다.

安壽吉의 小說에서는 언제나 國土의 主人다운, 主權을 가진 主人다운 意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自己의 國土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 民族이 解放과 獨立을 맞고서도 이 作中人物들의 意識에는 언제나 國土를 제것으로 갖지 못한, 自己의 運命을 自己가 다스리지 못하는 아픈 意識이 있다. 이것은 植民地時代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 時代를 살아온 知識인들이 갖는 意識이다. 그것이 安壽吉 小說에서 暗暗裡에 드러나고 있다.

그의 小說이 時間과 더불어 약간의 변모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 點만은 始終如一하다. 이것은 한 時代를 살아온 한 良心의인 知識인이 아픈 意識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II 技術의 諸相

〈1〉 作中人物

安壽吉의 小說에 登場하는 두드러진 人物들을 檢討하면 다음 몇 개의 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A型 : 박철(旅愁), 석(第三人間型), 남진석(IRAQ에서 온 不穩文書), 남(亡命詩人), 나(羅子 머자니크), 나(萌芽期), 나(削髮), 나(擲首), 진호(逆의 處世哲學) 등.

B型 : 황숙(旅愁), 미이(第三人間型), 은례(流產) 등

C型 : 박침지(벼), 아버지(새벽), 민식이(벼), 오손이(벼), 치호(벼), 역식(圓覺村),

14) 이 小說은 安壽吉이 咸興高普時節에 있었던 일을 小說化한 것으로 보인다. 小說의 內容과 그가 咸興高普時節에 있었던 일이 아주 비슷하다. (安壽吉, “부끄러운 小英雄心”, 「명아주 한포기」 pp. 36-37 參照).

찬호(牧畜記), 찬수(벼), 남선생(削髮) 등.

A型的 人物들은 대체로 知識人들이다. <박철>, <석>, <남진석>, <남> 등은 作家로 되어 있다. 이들은 이야기의 中心人物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話者의 역할도 한다. 良心的이고 消極的이며 약간 被動的 人物이다. 心理的 葛藤은 있으나 行動性이 缺如되어 있다. 性格的 變化가 없어 平面的人物(flat character)群에 넣을 수 있다. 그만큼 單調로운 느낌을 준다.

한 時代를 觀照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엮어가는 이 知識人의 모습은 한국 知識人의 한 象徴의 모습이며 다분히 安壽吉의 体臭를 느끼게 한다. 作家의 分身이거나 作家의 意識이 投影된 人物群이다.

이것은 나(羅子 머자니크), 나(萌芽期), 나(削髮), 나(梟首), 권호(逆의 處世哲學)의 경우에도 비슷한 樣相으로 드러난다. 作家라는 뚜렷한 모습으로 登場하지 않지만 그의 意識世界는 위에서 검토한 人物群과 大同小異하다.

이런 人物의 創造는 이야기의 現實感을 獲得하고 讀者와 作中人物間의 거리를 좁히는 意圖에서 登場시킨 人物도 있고, 또 安壽吉 個人의 內的體驗을 表現하기 위해 提示한 것 같기도 하다. 여기서 讀者는 이들 人物을 통하여 한 時代의 良心的인 知識人이 어떻게 狀況과 對決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보게 된다.

B型的 人物들은 天性的으로 밝고 明朗하며 富裕한 집 딸이다. 世俗的인 것을 싫어하고 꿈과 理想 속에서 짙은 時節을 보내는 文學少女의 氣質을 지닌 女性들이다. 그러나 環境이 바뀌자 전혀 딴 모습으로 변모한다. 經濟的 破綻이 있기 전에는 삶에 대한 意義나 使命意識이 없이 때로는 浮薄하게 보일 정도로 살아간다. 그러나 逆境에 처한 후 도리어 삶의 意義를 깨닫고 용감하게 自己變身을 하는 積極的 人間像이다.

放學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일을 돕는 일보다 原書와 詩集을 끼고 다니면서 읽거나, 生存보다 生活를 중요시하곤했던 <황숙>이가 빈대떡장사로 變身하고 그것을 보람으로 느낀다고 한다든가, <조운>이 도움을 거절하고 人間에게는 使命感이 있다는 말을 남긴 채 看護將校를 志願하는 <미이> 등은 安壽吉 小說의 人物들 중 印象에 남는 人物들이다. 逆境을 겪고서 드디어 自己自身을 되찾는 이 人物들을 安壽吉은 상당히 肯定하고 있다.¹⁵⁾

이들 人物들은 安壽吉 小說에 많이 登場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이고 生動感 있는 人物이다. 동시에 立体的人物(round character)에 속할 수 있는 인물로 韓國小說史에 드물게 볼 수 있는 人物이다.

C型的 人物들은 亡國人들이다. 祖國을 잃고 彷徨하는 人物들이다. <박침지>와 <오손이>, <아버지> 등은 植民地時代 農土를 갖지 못한 一般民衆이고, <찬수>, <남선생>, <찬호> 등

15) 安壽吉, “내가 창조한 女人像”, 『명아주 한포기』 pp.214-215 參照.

은 祖國을 빼앗긴 殖民地 知識人들이다. 대체로 敎員出身인 이들은 現實과의 對決에서 敗北하는 悲運을 맞보는 人物들이다. 이들 人物들은 A型的 人物들과 精神的 連帶感情을 지니고 있다.

「亡命詩人」의 〈알베드 바이로이다〉와 「羅子 머자니크」의 主人公〈머자니크〉도 亡國人이며 「이런 春香」의 主人公인 少女와 「파란눈」의 〈옥순〉이도 흔들리는, 부리가 든든하지 못한 祖國을 가졌기 때문에 悲劇을 겪는 人物들이다. 祖國의 保護를 받지 못하는 亡國人들이 이들이고 이것은 安壽吉의 意識의 깊은 곳에 자리해 있는 人物들이다.

小說史의 觀點에서 볼 때 〈남진석〉(IRAQ에서 온 不穩文書), 〈미이〉(第三人間型), 〈박철지〉(벼), 〈알베드 바이로이다〉(亡命詩人) 등은 중요한 人物로 浮刻될 것으로 보인다, 小說史가 일종의 人物의 肖像畫 展示場이라면 거기에 위에 든 人物들의 肖像畫는 더 添加될 것으로 보인다.

〈2〉 構成과 觀點

短篇小說은 무엇보다도 그 構成이 치밀한 데 그 特色이 있다. 따라서 單一人物, 單純構成을 요구한다. 동시에 讀者들에게 單一한 印象과 單一한 效果를 주어야 한다. 그런 觀點에서 보면 安壽吉의 短篇小說은 短篇小說이 갖는 一般的 特色보다 中篇 또는 中篇型 短篇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우선 登場人物이 여러 사람이고 複合構成으로 된 것이 많다. 이것은 視點과도 關係가 되는 것으로 그의 小說 가운데 佳作에 속하는 「第三人間型」, 「亡命詩人」, 「旅愁」등을 點檢하면 이내 드러난다.

가령 「第三人間型」의 경우, 主人公은 누구인가? 〈석〉인가? 〈조운〉인가? 아니면 〈미이〉인가? 이 小說은 상당 부분 〈석〉에게 이야기의 焦點이 모아졌고 또 事變이라는 衝擊을 거치는 동안 〈조운〉은 使命感을 버리고, 〈미이〉는 使命感을 새롭게 깨닫지만 〈석〉은 使命에 충실치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한 優柔不斷하고 消極的인 第三의 타입이라는 이야기로 미루어 主人公은 역시 〈석〉이라는 結論을 얻게 된다. 그러나 〈조운〉과 〈미이〉에 대한 이야기가 強烈하게 展開되어 讀者들은 자칫 主人公이 누구인지,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混亂을 겪게 된다. 그것은 構成의 複合性에 있다.

「旅愁」의 경우도 〈철〉의 이야기인지 〈황숙〉의 이야기인지 약간의 혼란이 일어난다. 이 小說은 〈철〉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부분 展開되고 또 그에게 이야기의 焦點이 모아졌지만 意外로 〈황숙〉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철〉의 눈에 비친 〈황숙〉이가 아니라 〈황숙〉의 입을 통해서 그녀의 지나온 날들과 현재의 心境을 듣는다. 讀者들에게 〈철〉에 대한 關心보다

오히려 <황숙>이라는 人物에 더 큰 關心을 갖게 될 可能性조차 있다.

「亡命詩人」의 경우는 상당부분 <나>(남선생)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主人公은 <알베트 바이로이다>임이 드러난다. 위의 두 作品과 비슷한 경우이지만 역시 이야기의 焦點은 <알베트 바이로이다>에게 있어서 선명하게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그 視點이 一人稱觀察者 叙述¹⁶⁾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그 視點이 정돈된 데 있다.

安壽吉의 小說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亡命詩人」의 경우에서처럼 一人稱觀察者 叙述을 愛用하고 있다는 점이다. 「벼」, 「削髮」, 「羅子머 자니크」, 「梟首」 등은 額字小說¹⁷⁾의 要素가 있다. 이러한 叙述方法도 複合構成과 아울러 이야기의 焦點이 鮮明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中篇型 短篇小說을 많이 쓴 金東仁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리고 安壽吉의 小說에서는 作家와 作中人物과의 距離¹⁸⁾가 너무 가깝다. 이를테면 「第三人間型」의 <석>, 「旅愁」의 <박철>, 「亡命詩人」의 <나>(남선생), 「IRAQ에서 온 不穩文書」의 <남진석>, 「削髮」의 <나>, 「타목」의 <나>, 「萌芽期」의 <나>, 「羅子머 자니크」의 <나>, 「梟首」의 <나>와 作家와의 거리는 너무 가깝다. 따라서 그것이 個人的인 <나>가 아니고 社會的인 <나>¹⁹⁾ 곧 客觀化된 <나>라고 하더라도 作中人物과 作家를 同一視할 우려가 있으며 또 客觀性을 잃을 素地도 있다. 이것은 자칫 小說의 效果를 半減케 할 요인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또 讀者와 作品과의 거리를 좁히게 하여 親近感을 갖고 읽게 하는 效果를 획득하기도 한다.

安壽吉의 小說技術的 側面은 20年代의 金東仁, 崔曙海, 30年代의 蔡萬植과 連結될 듯 싶다. 이들은 短篇作家이면서도 그 構成이나 人物設定 등은 中篇 또는 中篇型이 갖는 諸要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70年代까지 作品活動을 한 作家이면서도 그와 小說技法은 20年代나 30年代의 것을 繼承 發展시켜 急激한 變貌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3〉 背 景

安壽吉 小說의 時間的 背景은 舊韓末부터 70年代까지 그가 살아온 全時代가 된다. 그것은 韓日合邦, 3·1運動, 滿洲에서의 生活, 解放과 南北分斷, 6·25와 民族相殘, 4·19와 5·16 등

16) Cleanth Brooks &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59), pp. 659-660 參照.

17) 이것은 “Rahmenerzählung”의 譯語로 李在統교수는 「額字小說」이라는 用語로 金東仁의 『베따라기』의 경우를 例로 들고 있으며 (韓國短篇小說研究, 一潮閣, p. 83), 金柱演교수는 「格子小說」이라는 用語로 李炳注의 『辨明』의 경우를 例로 들고 있다. (文學批評論, 悅話堂, p. 134.) 여기서 李在統교수의 것을 擇하기로 한다.

18) a) Cleanth Brooks & Robert Penn Warren, op. cit. p. 664, 및

b) 鄭漢淑, 小說技術論(高麗大學校 出版部, 1973), p. 144. 參照

19) 尹柄魯, op. cit. p. 152. 再引.

歷史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온 그 自身の 體驗이 小說의 背景으로 그대로 置換된다. 이러한 時代的 激變과 人間의 삶 樣相의 變遷, 나아가 意識의 變化와 그 아픔을 記錄하고 있는 것이 安壽吉의 小說이다.

또 空間的 背景은 滿洲一帶, 특히, 間島地方과 그의 故鄉인 咸鏡南道, 그리고 서울과 6·25년 一時的 避亂地인 釜山 등이 그의 小說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것은 時間的 背景이 그의 體驗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처럼 空間的 背景도 그의 體驗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만주는 그의 소년시절과 젊은시절의 생활의 터전이었고 故鄉은 幼年時節의 記憶이 있는 곳이다. 釜山은 6·25년 避難의 經驗이 있고 서울은 越南後 그가 살고 있는 空間이다.

그의 小說의 背景 가운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間島地方을 中心으로 한 滿洲다. 安壽吉의 만주에 대한 意識은 다음과 같은 데 鮮明하게 드러난다.

넓은 만주, 탁 트인 만주, 활개를 치고 다녔자 거칠 것이 없었던 만주, 우리 민족정신이 맥맥히 깃들여 있고 선열의 피방울이 영겨있는 만주, 거기에 철에게는 7요람의 땅이었고 젊음의 정열을 쏟았던, 아름답기도 하려니와 추억도 많은 만주였다.²⁰⁾

원래 북간도를 중심한 동만(東滿) 일대는 국치(國恥) 전후부터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실지 전투를 한 독립군 부대를 비롯해 애국선열들이 피흘린 흔적이 생생한 곳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이주의 역사는 줄잡아 근 백년의 세월을 세할 수 있는 곳이다.

역사적으로는 우리의 땅임이 분명한 이 지대에 남의 땅에 온 것처럼 우여곡절 복잡다단했던 세기 말에서부터 금세 초기에 걸친 열강들의 각축전 속에 부대끼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상은 고로(古老)들의 전언과 더불어 기자였던 탕으로 현지답사 같은 것에 의해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²¹⁾

韓國小說의 背景은 대체로 韓半島內라는 좁은 테두리 속에 머문 경우가 많다. 三面이 바다 이던서도 바다로 나아가 冒險을 벌이는 그런 것조차 없다. 당연히 좁은 무대 속에 드라마조차 貧弱했다. 國土가 좁은 만큼 小說의 舞台조차 좁아 小說의 스케일마저 좁다. 그것에 비하면 小說의 背景을 滿洲까지 擴大시킨 것은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韓國小說에서 小說의 空間을 만주까지 擴大시킨 最初의 作家는 20年代의 崔曙海다.²²⁾ 崔曙海의 小說 가운데 間島를 背景으로 한 「紅焰」, 「饑餓와 殺戮」, 「脫出記」 등은 그의 小說가

20) “旅愁” 選集, p. 422.

21) 安壽吉, “어떻게 사느냐” 「명아주 한포기」, pp. 245-246.

22) 金永和, “崔曙海論”, 「現代韓國小說의 構造」(서울: 藝光文化社, 1977), pp. 55-56 參照.

운데서도 佳作에 속한다. 小說의 背景의 擴大라는 사실에서 民族의 流浪과 移動, 亡國人의 삶의 樣相을 間島까지 追跡해 나아간 것은 상당히 小說史的 意義를 갖는다.

1932년에 金東仁의 「붉은 산」에서도 間島를 배경으로, 그러한 배경을 통한 民族의 恨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消極的 意味 以上, 素材의 擴大 以上の 意味를 획득하지는 못한 것 같다.

1930年代 小說 가운데서 間島를 무대로 해서 作品을 쓰고, 國土의 延長, 民族의 據點의 延長, 異民族과의 葛藤, 亡國人의 痛恨등을 表現한 것은 安壽吉이다. 그의 意識은 만주가 外國일 수가 없었다. 『선열들의 핏방울이 엉켜』있고 『민족 정신이 맥맥히 깃들여』있는 곳이다. 동시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리의 땅』으로 意識된 것이다. 「새벽」은 崔曙海의 「紅焰」을 더욱 深化·擴大·洗鍊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벼」는 광막한 大地를 開拓하는 韓民族의 끈질긴 힘을 보여준다. 죽음과 疾病, 中國人 原住民과의 피비릿내나는 싸움, 그리고 中國과 日本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스런 삶을 영위하는 韓民族의 삶은 그것이 단순한 背景의 擴大만이 아니라 韓民族의 總體的인 삶의 한 樣相이라는 데 注目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安壽吉이 만주에서 생활하면서 體驗·目擊한 사실이라는 데 더욱 리얼리티와 說得力을 획득한다.

만주를 우리 民族精神이 脈脈히 깃들여 있고 先烈들의 핏방울이 엉켜있는 곳으로 意識하고 있는 것은 만주를 단순한 背景, 단순한 空間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以上の 것을 追求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後日 그가 「北間島」라는 巨作을 쓸 수 있었던 源泉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滿洲는 거슬러 올라가면 高句麗와 夫餘의 故土다. 이제 잃어 버린 故土이지만 우리에게는 남의 땅, 異國의 땅으로 意識될 수가 없다. 그 以前에 우리가 뿌리를 박고 살아갈 權利가 있는 우리의 땅으로 意識되고 있다는 것은 文學의 素材 以上の 意味를 획득하고 그것이 安壽吉의 民族의 삶의 空間에 대한 意識을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意味를 갖는 것이다.

IV 結

安壽吉의 作品世界는 亡國人意識을 바탕으로 대략 三段階의 변모를 거치고 있다. 初期(35—43)에는 祖國에서 農土를 잃고 滿洲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流浪民들의 삶을 表現하고, 中期(49—60)에는 南北分斷과 6·25의 民族相殘 등 歷史의 激動 속에 있는 韓國 知識人들의 苦痛과 良心의 問題를 表現하는 한편 人間의 意識이 어떻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가를 描寫하고 있다. 後期(61—77)에는 첫째 南北分斷과 이데오로기의 갈등 속에 있는 韓國人들의 被害意識과 不安을 表現하여 韓國인이 처한 特殊한 狀況과 아픔을 描寫하고 둘째 5·16後 急變

하는 社會에 適應하지 못하고 점차 矮小化해가는 人間의 悲哀를 表現하고 있다. 따라서 이 作家는 그가 살았던 當代社會의 問題를 小說의 主題와 題材로 選擇하고 이를 形象化하고 있다.

安壽吉이 創造한 人物 가운데는 安壽吉의 體臭가 깊은 人物들이 많고, 小說史가 人物의 肖像畫 展示場이라면 <남진석>, <미이>, <박침지>, <알베드 바이로이다> 등은 小說史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이들 人物들은 人物의 肖像畫 展示場에 添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安壽吉은 人物 創造에도 力量을 보인 作家다.

小說의 背景을 民族의 移動과 더불어 擴大시킨 것도 小說의 史的 意義를 갖는다. 20年代의 崔曙海의 小說 以後 이 作家만큼 滿洲를 小說의 背景으로 선택한 作家는 없다. 이것은 그의 體驗內容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일이라는 단순한 사실로 그칠 것이 아니다. 民族의 移動과 國土의 延長, 危機의 時代에 처한 韓國人의 삶의 現場을 小說의 背景을 통해 描寫한 것은 중요한 小說史의 意義를 갖는 것으로 이것은 安壽吉의 民族意識과 國土意識의 한 表現이다.

한 作家가 自己가 살았던 當代社會를 注意 깊게 觀察하고 問題를 찾아내어 이를 表現한 것은 純粹文學이라는 이름으로 現實問題에 눈감았던 作家의 그것에 비하면 肯定的인 評價를 받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危機의 時代에 살고 있는 作家의 경우에는 使命感과 勇氣가 없고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點을 前提할 때 安壽吉 小說은 小說史의 史的 脈絡 속에 깊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 Summary —

A Study on Ahn Soo-gil's Short Stories

Kim Young-hwa

Ahn Soo-gil (1911—1977) is a novelist who has left more than 20 novels, more than 60 short stories during his 40 years of life from 1935 when he made his literary debut until his death.

When we read through the short stories, we know that his short stories have undergone 3 phases of change with a sense of nation-lost person forming its keynote. 3 phases of change are as follows:

1) 1935—1943

His short stories express the wretched life and the regret of nation-lost miserable people who, in the colonial period, left the fatherland and wandered in Manchuria.

Typical works of the time are "Paddy" (1940) and "Dawn" (1940)

2) 1949—1960

He manifests the problems concerning the mission and conscience of the intellectuals in such historic turbulence as the division of fatherland and 6·25 war of same race.

Typical works of the time are "The third human style" (1953) and "Ennui of Journey" (1949)

3) 1961—1977

His works express a sense of suffering and uneasiness of Korean people in the circumstances of nations division together with split of the people and the ideological conflict.

Typical works of the time are "Subversive document of from IRAQ" (1965) and "Taste of Dongtae-Chige" (1970)

It can be summarized that Ahn Soo-gil is a writer who put more importance on the instructive element than the recreative element of literature because he treats the problems of our people's life, the problems of intellectuals' mission and conscience, and finally the problems of Korean people's sense of suffering and uneasiness who live in the tragic division of the country.